

# 디즈니 캐릭터 담은 한지부채... 전통공예 '세계화'

구례 공예 브랜드 '죽호바람' 전남도 관광두레지역협력사업 디즈니서 협업 제안 '큰 반향' "과거-미래 잇는 새 공예 지평"

전라남도 구례에서 3대째 전통 부채를 만들어온 공예 브랜드 '죽호바람'이 세계적 콘텐츠 기업 디즈니와 협업하며 한국 전통공예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다.

'죽호바람'은 전라남도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추진하는 관광두레지역협력사업을 통해 발굴된 예술인 기반 주민사업체다. 수작업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전통부채공예의 맥을 잇고 있으며,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전통문화의 스토리와 철학을 담은 작품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있다.

관광두레지역협력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2019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2025년 현재 195개 지역에서 863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죽호바람'은 2024년 전남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주민사업체로 선정됐으며, 최근 세계국가문화유산산업전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예술성과 전통가치를 동시에 인정받



디즈니 캐릭터가 담긴 한지부채.

았다.

'죽호바람'의 부채는 대나무발을 직접 경작하고, 대나무를 삶고 자르며 쪼개는 전통 방식 그대로 제작된다. 부채살 위에는 한지를 입히고, 한국적 문양과 꽃, 한복 등 섬세한 그림을 더해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제작의 모든 공정은 장인의 손끝에서 이루어지며, 오랜 전통을 지켜내는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러한 장인정신과 예술성은 세계적인 로도 주목을 받았다. 글로벌 애니메이션



허혜인 '죽호바람' 대표가 전통 한지부채를 만들고 있다.

전남관광재단 제공

기업 디즈니가 '죽호바람'에 먼저 협업을 제안해, 디즈니 캐릭터와 한국 전통 부채를 결합한 제품이 탄생하게 됐다. 디즈니 캐릭터가 담긴 한지부채는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전통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확장 가능성을 입증하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월드디즈니코리아는 '죽호바람'의 전

통성과 창의성에 감명받아 협업을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업은 단순한 라이선스 계약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기업이 한국 전통공예의 가치를 먼저 알아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복을 입은 여인의 자태를 형상화한 입체 부채 시리즈는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MZ세대에게도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

운 감성을 불러일으키며 '전통 공예의 재발견'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공간 장식과 선물용으로도 주목받는 가운데, 다채로운 현대적 패턴을 적용한 원형 부채 라인도 출시돼 전통과 모던의 균형을 완성하고 있다.

죽호바람 부채는 서울 현대백화점 팝업스토어, 핸드메이드 전문 유통 플랫폼 '아이디어스', 한류관광의 중심지인 북촌 한옥마을 편집숍 등에서 활발히 판매되고 있다. 한국 전통과 세계적 캐릭터가 어우러진 특별한 기념품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MZ세대의 관심을 동시에 끌고 있다.

한지의 질감 위에 얹힌 전통문양과 디즈니 캐릭터는 이질감 없이 조화를 이루며,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새로운 공예의 지평을 열고 있다.

허혜인 죽호바람 대표는 "이 부채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조상들의 삶과 기술이 담긴 유산"이라며 "디즈니와의 협업은 전통이 미래로 확장되는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할 전통을 세계와 나누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롯데백 광주점, '툰과제리' 팝업

롯데백화점 광주점 9층 행사장에서

는 '툰과제리'와 '산리오'의 캐릭터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툰과제리' 팝업스토어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툰과제리'의 다양한 굿즈를 비롯하여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산리오의 다양한 인기 캐릭터의 인형, 키링, 피규어 등 다양한 아이템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을 비롯하여 럭키박스, 구매 금액대별 감사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키즈라라·ACC재단, '꿈꾸는 직업놀이터' 운영

8월까지 ACC어린이문화원서 직업 체험·어린이특별전 마련

화순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 키즈라라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7~8월 두달 간 '2025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 꿈꾸는 직업 놀이터'를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과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해 키즈라라의 인기 직업체험 콘텐츠와 ACC재단이 발간한 아시아 각국의 그림책 5권을 연계한 새로운 체험콘텐츠로 제작됐다.

그림책 속 이야기를 키즈라라의 직업체험 콘텐츠와 자연스럽게 연계해 환경, 생명, 과학, 미술 등 다양한 주제와 직업 체험을 접목한 새로운 융합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특히 단순한 직업체험을 넘어, 그림책을 통해 얻은 상상력과 호기심을 실제 활동으로 확장시키며 아이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구름구름음료연구소에서는 그림책 '개굴개굴 고래고래'를 통해 물과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친환경 음료를 직접 만들



키즈라라와 ACC재단이 7월과 8월 두달 간 어린이와 가족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2025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 꿈꾸는 직업 놀이터'를 개최한다.

키즈라라 제공

어보는 '물과 자연을 지키는 음료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이식콜 뷰티살롱에서는 '이식콜 호수의 술루우수우' 그림책을 소재로, 아이들이 상상의 물의 여왕으로 변신해보는 '헤어스타일링 체험'이 마련된다.

구름친구로봇연구소에서는 '나의 구름친구' 속 자연현상을 코딩으로 표현해보는 'AI코딩 체험'이 운영된다.

세친구 동물병원에서는 그림책 '세 친구'를 기반으로 수의사가 돼 반려동물을 치료해보는 것은 물론 생명존중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사계절 향기공방 향수연구소는 '새해는 언제 시작될까?'를 주제로 사계절의 향기를 표현한 디퓨저 제작 체험을 통해 오감 발달과 감성 교육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키즈라라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직업체험을 넘어, 아이들이 책 속의 이야기와 현실을 연결하며 주도적으로 체험하고 상상하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가족이 함께 참여하며 더 풍성한 배움과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 재테크 칼럼

## 신정부의 고삐 죄는 집값... 믿어도 될까

이재명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과열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6억원 초과 금지와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6.27 부동산 대책은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실효성이 강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6.27 이후 일주일간의 거래량이 직전 주에 비해서 64%가량 하락했다.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술 더 떠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억제 의지를 보였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좌지우지돼 왔는데 신 정부가 집값 억제 쪽으로 명확한 방향을 잡았으니 이제는 수도권을 위주로 조만간 집값 하락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30년에 걸쳐 좌충우돌 했던 부동산 대책 덕분(?)에 폭등을 시작한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 이후 정상을 찾아가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윤석열 정부가 청

년대출 등 갖은 명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풀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폭등세를 보였다.

부동산 대출을 위주로 늘어난 한국의 가계부채는 어느덧 2000조원을 넘나들며 OECD 최상위를 기록해서 국내외 경제단체들로부터 위험 경고를 받은지 오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하락하는 집값을 떠받치려고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대출 등을 통해서 늘려주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당시 여당 출신이던 서울시장인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어서 뛰는 집값에 불을 붙이더니 결국 며칠 만에 반복하는 춘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과거부터 정부는 왜 집값이 하락해서 정상화되는 것을 가만두지 않는지 생각해 보면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공직자들 자체가 기득권 세력이고 본인을 비롯해서 일가친척들 중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상상해 본다. 다행히 신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첫 부동산 정책으로 나온 6.27 대책만 보더라도 그저 그런 시늉만 보이는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들이 놀랄 정도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앞으로 집값은 서울을 중심으로 빠르게 하락할 것이다. 오르던 관성 때문에 당분간은 수도권 집값이 버티기에 들어가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질 것으로 생각된다. 신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어볼 때다.